

“이번 수사는 반기문 총장 견제 위한 이완구 총리 작품”

성완중 녹취록 무슨 내용 담겼나

허태열에 몇달에 걸쳐 7억원 주고 김기춘 실장 10만달러도 직접 전달 서병수·유정복은 언급 없어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 전문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녹음 분량은 48분14초로, 200자 원고지 84매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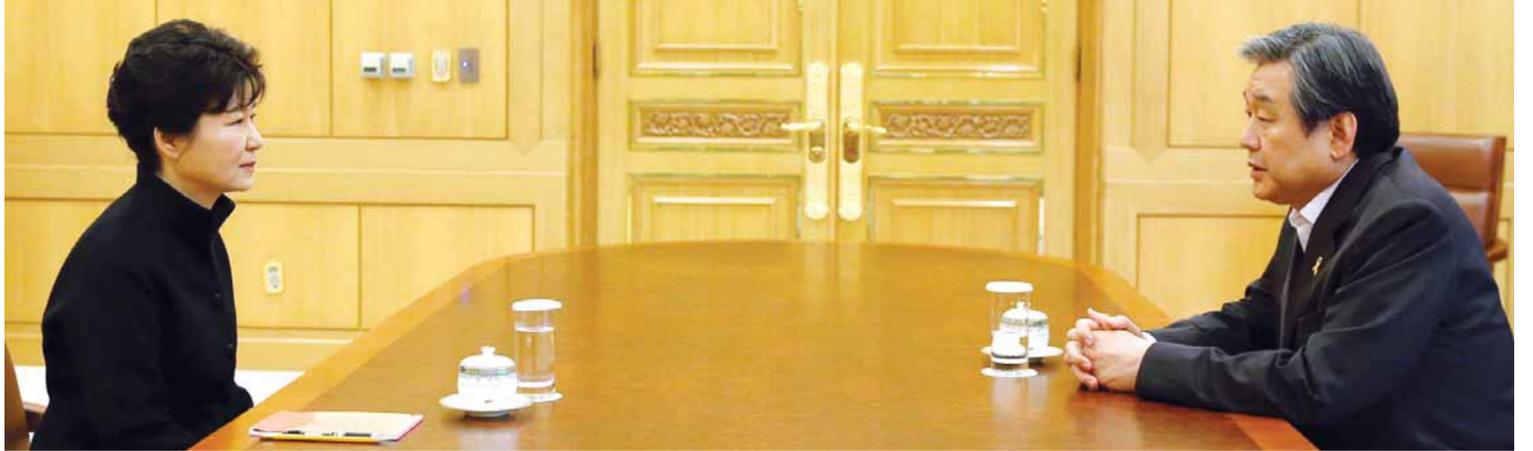
전문에는 성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될 당시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에 이름이나 직함이 적힌 정치권 유력 인사 8명 가운데 5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메모지에 적혀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요약해본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섭섭함=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는데, 이완구 총리가 사정 대상 1호다.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사정을) 주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이번 검찰 수사는) '이완구 작품'이라고 한다. (이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식해서 얘기가 많았다. 내가 반기문과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총장)포럼 장



총리 거취 논의?...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청와대 긴급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오후 박 대통령의 제의로 청와대에서 소위 '성완중 사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람멤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요인이 제일 큰 게 아닌가 (있다). 너무 욕심이 많다. 그 양반(이 총리)은.

◇돈 전달 인사들 거명=이완구 총리도 지난 번에 보궐선거 했지 않았다. (이 총리 측)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3000만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 관계를 형성했다.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만났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07년 대선 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

다. 몇 달에 걸쳐 7억원 주고 리베라호텔에서 만나서 몇 회에 걸쳐서 줬다.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다. 2006년 9월에 벨기에와 독일 갔었는데,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갈 때 이 양반(김 전 실장)이 야인으로 놓고 계셨다.

10만불,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수행비서도 따라왔다.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줬서 조직을 관리했다.

홍준표가 당 대표로 나갔을 때, 2011년쯤 됐을 것이다. 1억원을 ○○일보 ○○를 통해서 전달했다.

◇내가 희생해서 사회 바로잡아야=검찰 조사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 마누라

와 아들, 형님들 다 (조사)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포스코는 비자금 (의혹 사건)만 수사하지 않는다.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성완중이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좀 인식시켜 주도록 써 달라.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이완구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

김무성 “고민하고 고려해보겠다”...새누리 내부 사퇴론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완중 리포트' 파문과 관련해 3000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수는 130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해외순방을 떠

나는데 대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성완중 리스트로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고 ‘피의자 총리’에 관한대행을 말하고 나간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성완중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검토 여부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직후 “(이 총리를 두고) 자주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내에서 ‘자진사퇴론’이 불거진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소장파·쇄신파를 중심으로 이 총리 사퇴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중, 충청포럼 기반 ‘반기문 대망론’ 주도?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전 자신에 대한 '기획수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계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서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의 발인 때문에 '반기문 대망론' 배경에 실제로 성 전 회장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 인사들에 따르면 실제로 충북 출신인 반 총장은 과거 성 전 회장이 만든 '충청포럼' 행사에 자주 참석했고, 충청포럼이 '반기문 대망론'의 진원지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성 전 회장의 말처럼

반 총장의 동생도 경남기업 고문으로 근무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접촉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써 '반기문 띄우기'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고문의 입을 통해 '반기문 야당 후보론'이 회자한 바 있으며 권 고문에게 그 뜻을 타진한 사람도 성 전 회장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반기문 대망론'을 앞세워 여권 핵심 인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고속철 2단계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국회의원 155명 발의...요금 인하·운행시간 단축도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 갑)의원 등 155명의 국회의원들은 16일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4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요금 산정과 지나치게 적은 운행 편수 등 불합리한 운영으로 국민 편익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에서 ▲오송역 분기로 인한 우회구간의 요금 인하 ▲2016년 수서발 KTX 개통 직후 대대적인 증편과 운행시간 단축 ▲2단계 구간(광주 송정-목포)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에는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18명 의원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36명, 정의당 1명 등 재적의원의 과반을 훌쩍 넘

긴 15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공급좌석 수를 주말기준 4만 2000석으로 늘렸지만 예상이용객은 3만명으로 전망돼 1일 1만석의 초과공급이 우려 된다”고 밝혔으나 개통 후 첫 주말 이용객이 4만명을 넘어섰고, 평일조차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등 철도공사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 지금이라도 당장 운행편수를 늘려할 상황이라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지역의원들과 광주시, 전남·북 등 지자체에서 국토부 장관과 철도공사를 상대로 요금 인하와 증편 등을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르르~ 세계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올림픽!!!

2015광주하계U대회

7월

광주에서 함께 해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기 간 2015. 7. 3. ~ 7. 14. (12일간)
 장 소 광주·전남·전북일원 경기장
 규 모 170개국 20,000여명
 종 목 21개 (정식 13 / 선택 8)